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보스톤의 독특한 문화는 옛것과 현대가 뚜렷하게 공존하면서 발생된다. 사진은 보스톤 올드 스테이트 하우스다

오래 살아도 모르는 보스톤 사람들만의 독특한 문화

밀크셰이크를 보스톤은 프랩(Frappe)이라 부르고
겨울철 이곳저곳 구멍난 도로처럼 불친절한 보스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에 머문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보스톤을 잘 모른다. 언어와 문화가 달랐던 이방인이어서 그렇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보스톤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랐던 미국인들도 보스톤의 독특한 문화에 도리질을 친다.

보스톤 문화는 이중적이다. 삶이 원래 이중

적이고 패러독스의 연속이어서일까. 진보적인 도시의 대명사이지만 생활은 보수적이기 짝이 없다. 옛날의 잔재로 볼 수 있는 로터리는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아무도 웃지 않는 곳. 페이스 북이 만들어진 곳이지만 밤이면 아주 친한 사람 들하고만 어울린다.

보스톤글로벌브는 새로 >>8면으로 계속

3월 13일 일요일 서머타임 시작 (관련 기사 26면)

SPRING FORWARD

1hour

13일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1시간 빠르게 바뀐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 5년만의 정권교체

보수-진보결집에 초반빙 혈투 끝 상승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4시께 98%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8%, 1천592만표를 얻어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1%, 1천567만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0.8%포인트, 25만 표에 불과하다.

개표 중반까지 이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표율 51% 시점에 >>14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MOVEMENT MORTGAGE

인생 최대의 투자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주택용자/재용자, 주택연금/투자 전문용자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컨설팅
최적의 이자율로 함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Call **MIKE LEE** today (978) 314-8818
mike.m.lee@movement.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지니스 · 빌딩 · 렌트
MA, Korea licensed
Mu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평통 정기회의, 한반도 평화 실현 논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최은경 부 회장,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한선우 회장)는 3월6일 보스톤한인교회에서 “1분기 보스톤 협의회 해외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 방안을 주요안건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토론했다.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은희 간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방안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의 제도화” 구축,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고려사항, 7.4남북공동서명 50주년으로 새로운 남북관계의

분수령,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민주평통의 실질적 실천 방안 모색 등을 논의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통일 미래주역인 청년세대와의 소통활성화, 지역평화 명소발굴 및 일상적인 평화공간조성, 마지막으로 K문화와 함께하는 평화공공외교의 적극적 추진안이 제시되었다.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6.25 참전용사기념비를 중심으로 걷기대회 개최, “보스톤 커먼”과 그의 지역명소를 이용해 K문화를 알리고 동시에 남북평화문제를 어필하는 자연스런 기회를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질 것 등등 다양하고 풍성한 정책 제안들이 수렴되었다.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동창회 2022년도 장학생 모집

장학금 1인당 \$2,000-\$3,000 독창적인 사용계획에 점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동창회(SNUAA-NE, 회장 김유경)는 한국인, 유학생, 한인 자녀,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2022년도 장학생을 선발한다.

서울대 동창회는 뉴잉글랜드 지역 학생 가운데 현재의 도전과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네트워크 및 멘토십을 형성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겠다는 목표다.

서울대 동창회에 따르면 장학금은 \$2,000-\$3,000이며, 특히이 장학금의 독창적인 활용계획을 가진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Application Form)를 참조하면되며,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모든 구비 서류를 online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웹사이트, www.snuane.org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마감은 5월 1일이며, 6월 초에 선발된 장학생에게 이메일로 연락한다. 장학금은 6월 18일 동창회 총회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Junior(11, 12학년) 이상의 유학생, 2세, 입양인 등으로서 학업성과 리더십이 출중해야 한다. 장학금 신청에 관한 문의 사항은 snuane@gmail.com (수신: 장학위원회)로 보내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현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현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승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st Soup in the City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바이올리니스트 리사 김, 보스턴 심포니 단원들과 실내악 콘서트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이상원 객원 기자 =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이사장 정정욱, 회장 김병국)가 주최하는 <봄 실내악 콘서트>가 오는 3월 26일(토)에 메드포드에 위치한 텡스대학교의 그라노프 뮤직 센터에서 열린다. 이 콘서트는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리사 지은 김 씨를 주축으로, 실라 피에코브스키(바이올린), 대니얼 겐츠(비올라), 올리버 알도르트(첼로)가 출연한다. 네 명 모두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다.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리사 지은 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명예교수인 작곡가 김성기 씨의 작품 현악 삼중주 <골목길 (2017)>과 체코 작곡가 마르티누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세 개의 마드리갈>,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2번, Op. 127>이 연주될 예정이다.

<골목길>은 한국의 화음프로젝트에서 기획한 곡으로, 화가 박수근(1914~1965)의 동명 작품을 소재로 한 곡이다. 김성기 작곡가는 박수근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소박함과 친근함을 단순한 선율과 한국적인 장단을 사용하여 세 개의 현악기에 담았다. 2018년 독일 초연 이후 2021년에 한국에서 연주되었으며, 이번이 미국 초연이다.

바이올리니스트 리사 지은 김 씨는 샌디에이고 출신으로 줄리어드 음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과 2012년 뮤

지컬 메리트 컴퍼니션의 우승자로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 및 뮤직 스쿨의 전액 장학금을 수상했고, 휴스턴 심포니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부터 보스턴 심포니 단원으로 재직하면서 꾸준히 실내악과 솔로 연주도 병행하고 있다.

예술협회의 음악 부문 디렉터인 나유선 씨는 “탁월한 앙상블이 기대되는 연주이다. 리사 김과 보스턴 심포니 연주자들의 실내악 연주를 좋은 공간에서 들려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최근의 한국 작품도 소개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과 티켓 구매는 아래 공연 정보 및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연주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7세 이상 관람가이다. 예술협회가 제공하는 QR 코드를 이용하면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다.

<공연 정보>
봄 실내악 콘서트 Spring Chamber Concert
일시: 2022년 3월 26일 (토) 오후 7:30
장소: Tufts University Granoff Music Center (20 Talbot Ave, Medford, MA)
티켓 및 정보: www.kcsboston.org, (781) 223-4411 (일반 \$30/시니어 \$20/학생 무료)

3월 13일 일요일 서머타임 시작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2년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이 3월 둘째주 일요일인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3일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1시간 빠르게 바뀐다. 토요일 밤 잠들기 전에 시계를 한시간 앞으로 돌려놓고 자는 것이 좋다. 시간을 앞으로 돌려야 할지 뒤로 돌려야 할지 혼동이 되면 ‘Spring forward Fall back’ 으로 기억하면 쉽다.

서머타임 기간에는 보스턴을 비롯한 미동부 지역의 한국과의 시차가 현재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1시간 줄어든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부 지역과 서울의 시차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바뀐다. 서울의 시간은 미국 동부보다 13시간, 서부보다는 16시간 빠르게 된다.

서머타임의 시작은 비공식적이지만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일몰이 지금보다 한 시간 늘어나 6시 30분까지 해가 지지 않는다. 이에 야외활동 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1시간 정도 더 갖게 된다.

서머타임은 낮 시간대를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와 하와이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서머타임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봄과 가을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시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점차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머타임은 매년 계속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우크라이나발 오일쇼크, 어떻게 대비하나?

유가 급상승, 경기불황 겹쳐 스테이플레이션 우려 러시아 침공 후 유가 100달러 넘어 매일 고공행진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오일쇼크, 1973년 중동전쟁, 1979년 이란 혁명 후 이란-이라크 전쟁, 두 전쟁이 초래한 두 차례 유가 급등이 세계경제를 강타한 것이 오일쇼크다.

유가가 급등하며 물가를 단기간에 가파르게 끌어올리면 수요가 위축돼 불황으로 이어지는 상태가 된다. 7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스테이플레이션(Stagflation)이 등장하는 시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주 일째 접어들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강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수백억달러의 해외자산을 동결했고, 주요은행의 외화거래(SWIFT)도 막았다. 러시아 항공기도 금지시켜 러시아 내에 가뒀다.

현재까지의 경제제재는 한 나라에 가해진 가장 강력한 조치다. 루블화의 가치는 지난해에만 30%가

폭락했다. 러시아 주식 시장은 문을 걸어 잠갔다. 미국의 기업들과 유럽의 기업들을 모두 러시아에서 받을 빼고 있다.

재빠르게 미국과 유럽이 취한 경제제재에도 한가지는 여전히 제외된 것이 있다. 러시아 경제의 생명줄과 같은 석유와 가스의 수출은 여전히 제재에서 예외다. 서방도 러시아도 서로 건들이지 않고 싶어하는 뇌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이 격화되면서 러시아 석유가 전체 석유수입량의 9%에 불과한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이 과격해 지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우크라이나 침공직전 가파르게 올랐던 유가는 침공 이후 배럴당 2월 24일 \$100달러를 돌파했다. 3월 8일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는 배럴당 \$130을 기록했다. 10일 미국 주유소 개스 가격은 평균 갤론당 \$4.25을 넘어섰다.

무디스의 수석경제학자 마크 잔디는 지난 주 고객들에게 보낸 분석편지에서 유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 미국내 소비자들은 올해 800억달러를 개스값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높은 유가는 2022년 인플레이션을 0.5% 끌어올리고 경제성장을 0.2%주저 앉게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이 석유수입을 금지했지만 큰 변동상황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미리반영됐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미 일부 외국 정유사들은 러시아의 석유수입을 꺼리고 있었으며 은행들은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대형 회사들이 러시아와 교역으로 기업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는 동시에 선박이 미사일에 격침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내보였다고 지적했다.

보스톤소재의 렉스연구소 아리 지 벤 버켈 에너지연구 수석은 지난 주 보스톤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제재가 어떤 상황에 이르면



불확실성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석유대금 지급은 어려워짐과 동시에 위협해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대부분의 고객들은 러시아 에너지를 회피하게 됐으며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서방 경제제재가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 러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에너지공급망의 차단으로 잃을 게 없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 서방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는 순간도 발생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인명살상과 파괴가 자행된다면 미국에 이어 유럽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어찌됐던 러시아 석유공급이 중단되면 러시아에게도 재앙이겠지만 세계도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전망이다.

지오프리 힐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경제학자는 “이는 유가를 배럴당 \$150로 급등시킬 것”이라고 보스톤글로브에 밝혔다. 이 경우 스테이플레이션, 불황 등의 단어가 한 동안 우리 곁에 머 ▶5면으로 계속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마음대로
골라본다
\$24.99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39.99

*전상품 1년 약정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보스톤시 공무원 승진 인맥, 피부가 좌지우지

▶▶4면에 이어서
무르게 될 수 있다.

한문수 라셀 및 노스쇼어 경제학 교수는 “미국 경제에 80년 초 이래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일 쇼크가 발생하여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더욱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0년대 2차례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적으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한 교수와 마크 잔디수석 경제학자는 연준(Fed·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1970년대 장기 인플레이션을 통해 교훈을 얻었기에 경제가 그런 길로 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한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 “좀더 각 개인의 재정상태를 건전하고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무리하고 공격적인 사업 확장 등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코인과 주식 등 위험요소가 큰 부분에 자산을 분배하는 투자 전략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장 안전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달러와 금 등의 확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 고 조언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시의회 '정실인사' 제거 법안 상정 미셸 우 보스톤시 편파적인 인맥 인사 제거할 것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시에서 대부분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백인들이며 인맥과 정실인사로 승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드디어 정식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문제를 피해 당사자들인 유색인종 및 소수민족 공무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승진이 백인 위주로 편향된 정실인사” 라고 지적해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8일 온라인 줌으로 열린 보스톤 시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보스톤시 공무원들이 낸 것이다. 이번 청문회는 히스패닉계 시의원 줄리아 메자 및 리카르도 아로요 시의원이 제안한 시 “직원 채용 및 승진에 있어 편견과 정실인사 제거” 법안 상정에 따른 청문회였다.

보스톤시 공공사업부에 재직하고 있는 핵터 메이저스는 “공정한 기회란 사실상 없다. 지난 20년간 근무 경험으로 인터뷰를 봤는데 6개월 경험 가진 인터뷰한 사람의 친구에게 돌아갔다” 고 털어냈다.

그는 또 자신이 승진을 기다리자 주위 사람들이 시간낭비라고 조언

했다고 말했다. 이미 공공사업부 고위직들은 승진 후보를 이미 정해 두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스톤시 공공사업부의 이러한 정실인사를 증언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소수민족경찰 협회 소속의 제프리 로페즈 보스톤경찰 형사는 경찰내에서 수퍼바이저급 중 소수민족이 거의 없음을 지적했다. 경찰인력의 3분의 1이 소수민족인데 반해서 소수민족 출신의 캡틴은 9%에 불과하다. 로페즈는 매사추세츠 주내에서 단 한명의 소수민족 형사과장(captain detective)은 없으며 단 한명의 부서장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로페즈는 “경찰서 내에 각종 승진 문제에 있는 너무 많은 정치가 개입한다” 며 특별 부서 고용과 승진에는 정치적 고려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스톤 경찰 오스카 게레로도 로페즈와 유사한 증언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그는 부서내 승진은 인맥이나 가족관계를 통해서 이뤄지며 업



무능력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스톤 응급구조대(Boston EMS) 부서관 데니스 바이넨(36)은 무려 10차례나 다른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자신의 부서내 승진 과정은 “최악” 이라고 평하고 오래된 친구관계 네트워크가 판을 친다” 고 지적했다.

한 보스톤 상하수도 근로자는 “충성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대로 인사를 들여다 보지 않는 것” 이라고 보았다.


보스톤 소방서 데릴 히긴바툼 캡틴은 “단지 앉아서 모든 것이 잘되

길 기다려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인종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미셸 우 시장의 매링클리 솔리스 서버라 공정 및 포용 수석은 모든 부서가 이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버리게 하는데 집중할 것이라 말하고 자신의 사무실이 다양성을 고려한 인사로서 변환하는 데 선두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스톤글로브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보스톤시 공무원 인력은 19,000명 중 절반 정도가 백인이었다.


hsb@bostonkorea.com



피터 김 부동산

주택, 콘도 및 상업 건물 전문

MA 전지역 (32개 지점 MA 전지역에 위치)



Peter Kim REALTOR®
508.904.4735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Commonwealth Real Estate

Direct line: 508.530.0125
Mobile: 508.904.4735 (Text for Urgent Matters)
www.PeterKimRealtor.com





THE WORLD'S No.1 GINSENG BRAND CheongKwanJang

정관장

어흥! 호랑이 면역력

설에 챙기세요 정관장 면역력!



행사기간: ~2월 6일까지

정관장 면역력 설날대잔치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3개 구입시 120g 증정



\$250 이상 구입시
홍삼원골드 1박스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세무조사를 유발하는 10가지 세금보고시 문제들

팬데믹 그랜트, 대출, 세금크레딧 등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 많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년 1백만명 이하의 미국인들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특세 세금보고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요 세무조사 대상이다.

IRS로부터 날라온 편지는 미국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유는 대부분 돈을 내라는 통지서이거나 가장 우려하는 세무조사의 대상이라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이다.

올해는 팬데믹 연방 그랜트 및 대출,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 및 사업주들이 세금 보고를 하는데 있어 상당한 애로를 겪을 전망이다.

미조리 소재 앨프맨, 그레이 앤 코 회계법인의 래리 그레이 파트너 회계사는 “올해 세금보고는 지뢰밭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싼 세금법과 새롭게 시작된 크레딧이 많기 때문” 라고 지적했다. 그레이 본인은 미세금융 전문가 협회와 정부기관 사이의 연락관 역할도 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꼼꼼하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에릭 스미스 국세청 대변인은 원론적으로 말한다. 또한 세금보고 수정시 문제를 더욱 빨리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세금보고해달라고 대변인은 밝혔다.

그렇다면 세금보고 내용 중 어떤 것이 세무조사를 유발하는 행동일까? IRS와 세금전문가들이 지적하는 10가지 세무조사를 유발하는 납세자의 행동을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

도했다.

1. 교육세금 크레딧(Education tax credits)

지난해 두가지의 교육관련 세금 크레딧이 제공됐다. \$2500 AOTC(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는 학사학위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2,000의 LLC(Lifetime Learning Credit)는 커리어 변경이나 대학 졸업 이후 전문교육을 추구하는 경우 주어진다. 이 두가지 모두 자격 조건이 있다. 예를 들면 AOTC는 최소한 절반 정도의 시간을 학교에 재학해야 한다. 또한 이 돈은 학비, 교재, 수수료 등에 쓰인 돈이어야 하며 기숙사비용으로 사용되서는 안된다.

“세금보고시 두개중 해당되지 않는 교육세금 크레딧을 신청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런 혼란을 자주 보아 왔다” 고 브라이언 캐논 캐논 어드바이스 회계법인 대표는 말했다. 또한 그는 “같은 연도에 두개의 교육 크레딧을 모두 신청해서도 안된다” 고 덧붙였다.

세무조사 유발행위 -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교육 크레딧을 신청하거나 같은 해에 두 크레딧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교육비용을 신청하고 산출하는데 필요한 폼인 8863(Form 8863)을 제출하지 않은 것.

2. 스몰비즈니스(Small businesses) 올해 세금보고 시즌에 IRS가 가장 면밀하게 주시하는 곳이 바로 스몰비즈니스들이다. 특히 S Corp과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그리고 파트너십 형태로 현금 수입이 많은 레스토랑, 바, 식품점, 미용실 등 중

년 약 \$100,000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들이 주요 주목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 중 특히 과다한 사업체 비용처리, 의심스러운 사업주 소득 등에 주목한다.

국세청은 주목하는 업체들은 다음과 같다. 특히 현금을 많이 다루는 레스토랑, 바, 미용실, 식품점 등 S Corp과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그리고 파트너십 형태로 구성됐으며 1년에 10만불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경우다. 과다한 사업체 비용차감, 너무 적은 사업주 소득 보고 등이 들여다 보는 항목이다.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스몰비즈니스는 때로 인위적으로 사업주의 소득을 적게 보고해 세금을 낮추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회계법인 인스파이어드파이낸셜을 운영하는 마크 팬더가스트 사장은 “자신에게 매우 낮은 임금을 설정함으로써 페이롤택스를 회피하려 하지 말라” 고 조언했다.

또한 케어스법안(Cares Act)에 따라 PPP를 받은 사업주들도 특별히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출 금액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고 앤드류 셔먼 시카고 소재 로펌 파트너는 말했다. 최소한 60%의 PPP는 급여비용, 유틸리티, 렌트, 그리고 모기지 이자 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세무조사 유발행위 - 모든 소득을 보고하지 않고 축소하는 것, 자신의 급여를 낮추는 것, 사업 비용지출을 늘리는 것, 전년에 비해 과다한 손실을 보고하는 것, 대출 탕감을 기록하



지 않는 것, 개인과 사업체의 소득과 비용을 섞이도록 하는 것, 과다한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비용, 수정 보고

3. 차일드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2021년 동안 차일드택스 크레딧의 조정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많은 세무조사를 유발시킬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세금보고 크레딧이 6세에서 17세의 경우 이전해 \$2,000에서 \$3,000로 늘었고, 6세 이하인 경우 \$3,600로 늘었다. 2021년의 미(American Rescue Plan)으로 6천만 어린이들에게는 지난 7월 15일부터 선지급금으로 텍스 크레딧을 매달 지급됐다.

세금보고시 이 받은 비용을 차감하여야 한다. 만약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이 크레딧을 받았다면 오히려 돈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한 전문가는 “이 차일드택스 크레딧은 수백만 미국인 가정의 가장 큰 세무조사 원인이 될 것이므로 세금보고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특히 이번 차일드택스 크레딧은 부부공동세금보고자들에게 상당한 실

수의 여지가 많아 세금보고시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특히 이혼을 한 부부 또는 이혼한 가족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체크가 중간에 분실되었을 수도 있으며 과거 배우자에게 직접 입금된 세금보고 크레딧을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 메레디스 세금 서비스의 한 요원은 지적했다.

더 복잡한 문제는 지난 1월 IRS가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받은 국민들에게 받은 금액을 표시해 보내는 편지 6419에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편지에는 실제 받은 금액과 다른 금액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차일드택스 크레딧 수령자들은 IRS.gov/Account에 접속해서 자신이 받은 정확한 크레딧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무조사 유발행위 - 차일드택스 크레딧 선지급금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는 것;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는 것

4. 가상화폐 거래(Cryptocurrency transactions)

올해 세금보고 양식 1040의 1번 질문은 가상화폐를 받거나, 팔았거나 거래했거나 투자 ▶▶7면으로 계속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세무조사를 유발하는 10가지 세금보고시 문제들

▶▶6면에 이어서

했는지 여부다. IRS는 향후 10년 동안 가상화폐 거래에 300억달러의 세수를 의무적으로 거둬야 한다. 모든 가상화폐는 세금보고에 있어서는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IRS는 가상화폐를 거대하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세금보고에 반영하는 사람은 이에 맞춰 증가하지 않고 있다” 고 IRS와 계약을 맺고 미 국민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있는 가상화폐 소프트웨어 회사 젠레저(ZenLedger)의 덴 헨넵 최고운영책임자는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세금보고는 어려움이 많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세계 전역에 몇 개의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며 10~20여개의 디지털 월렛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헨넵씨는 개인이 양식 8949에 모든 정보를 종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세금보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헨넵씨는 “IRS가 개인의 디지털월렛의 활동을 추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라고 경고했다.

세무조사 유발행위 - 가상화폐 소득을 적게 보고하거나 가상화폐이자 계좌의 이자소득을 줄여 보고하는 것; 모든 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것.

5. 근로소득크레딧 (Earned-income tax credit)

매년 2천5백만 중저소득층은 근로소득크레딧(EITC)을 받고 있다. 2021년 세금보고시 소득이 \$57,414 이하이며 투자소득이 \$10,000 이하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EITC를 받을 수 있다. 최소소득은 \$6,728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수십억달러의 크레딧이 실

수로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EITC신청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2021년만 자녀가 없는 부부가 EITC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며 젊은 근로자와 시니어들도 처음으로 EITC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세 이상이거나 64세 이상인 경우 EITC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24세 이상이어야 한다.

세무조사 유발행위 - 세금보고자의 자녀가 아닌 자녀를 통해 EITC를 신청하는 것, 부정확한 소득보고, 투자소득 1만불 이상, 소득의 과다 또는 과소보고

6. 대규모 자선 기부 (Large charitable contributions)

자선 기부는 세금감면을 받는다. 세금감면의 수혜대상은 종교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여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액이 연간 소득 금액에 비해 높은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부 감면은 개인 총소득의 60%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재산의 기부가거나 사립재단 기부일 경우 그 한도가 낮아진다.

세무조사 유발행위 - \$250이상의 기부에 대해서 영수증, 캔슬드 체크, 금액 수령을 인정하는 편지 등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 현물 기부의 과대표기, 금액 평가(appraisals) 거치지 않는 경우.

7. 렌트 소득 (Rental Income)

에어비엔비로 인해 많은 새로운 렌탈 비즈니스 진입자들은 렌탈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비근로소득(Passive income)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렌탈로 인한 비용이 소득보다 커 렌트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자신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금보

고자들의 실수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개인집과 에어비엔비를 혼용하는 경우 더 많은 비용지출을 보고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가족이 더 많이 거주할수록 비용지출로 인한 감면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언제 에어비엔비를 통해 렌트를 했는지 기록과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무조사 유발행위 - 렌트 수익을 적게 보고하는 것, 대형 렌탈 손실을 보고하는 것, 과다하거나 과소한 비용차감

8. 홈오피스 디덕션 (Home-office deduction)

올해 세금보고에서 홈오피스 디덕션(Home-office deduction)은 누가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큰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세법에는 2025년까지 회사 직원들의 집 근무 관련 비용지출 처리를 2025년까지 중지시켰다. 따라서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를 했던 사람들의 경우 홈오피스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단지 자영업자들(self-employed)만 홈오피스 비용지출이 가능하다.

홈오피스 세금 감면은 제한적이다. 집에서 사용한 사업비용만 차감 가능하다. 예를 들면 렌트와 모기지 이자, 보험, 유틸리티, 수리 및 감가상각의 일부분만 차감이 가능하다. 또한 사무실 각종 서플라이, 우표, 컴퓨터, 셀폰, 그리고 기타 비즈니스에 사용된 물건에 대한 비용도 차감 가능하다. 프리랜서이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부분적인 홈오피스 디덕션이 가능하다.

릭 레이놀즈 전 국세청 직원은 “



그러나 해당 방이 반드시 전적으로 또는 아주 정기적으로 사업체를 위한 것이거나 고객들을 만나는 room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고 조건을 달았다.

이 감면은 W-2를 받고 있으면서 자영업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세무조사 유발행위 - 집 공간의 큰 부분을 사용하거나 W-2 근로자이면서 감면을 선택하는 경우 위험하다.

9. IRA나 401K의 조기 인출 (Early withdrawals from IRAs or 401(k)s)

IRS는 이 거래를 면밀하게 주시하므로 개인들은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IRA나 401(k)를 59세 6개월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 일반소득세에 덧붙여 10%의 추가 패널티가 부과된다. 로스 IRA 일부는 조기 인출시 10%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조기 은퇴했거나 경관 또는 기타 법집행요원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세금보고시 모든 소득에 대해 Form 1099-R을 첨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보고하는 모든 금액을 비교한다.

세무조사 유발행위 - IRA나 401(k)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모든 서류를 1040에 포함하지 않는 것

10. 의료보험 세금 감면 (Health premium tax credit)

모든 개인은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마켓에서 보험을 구입한 경우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양식 8862를 세금보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텍스크레딧과 실제로 지불한 보험료가 명확하게 나타내 준다.

이 과정은 좀 혼동을 줄 수 있다. 2021년 전까지는 연방 빈곤소득기준 400%인 사람들까지 이 오바마케어 가 가능했다. 그러나 2021년 2022년의 경우 400% 이상의 사람들도 의료보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다음해 소득을 예상해 그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자신의 소득을 너무 과다 또는 과소하게 잡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소득을 과다하게 예상하는 경우 크레딧을 더 돌려받지만 과소하게 예상하는 경우 다시 돈을 갚아야 할 수 있다.

전문가는 “가장 큰 문제는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을 낮게 예상해 많은 세금크레딧을 받는 경우다. 이 경우 세금보고시 받은 크레딧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갚아야 하는 수가 있다.” 고 지적했다.

세무조사 유발행위 - 부부가 개별적으로 세금보고하는 경우 사기 또는 실수가 많으므로 국세청의 주목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양식 886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유발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 지사 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보스톤 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시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오래 살아도 모르는 보스턴 사람들만의 독특한 문화

▶▶1면에 이어서

운 보스토티안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화들을 2월 소개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를 좀더 보충한 보스톤만의 독특한 문화를 소개한다.

주택 및 가격

보스톤의 집들은 여러가지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또한 보스톤의 날씨와 관련된 집 구조도 있으며 이는 흥미를 자아내기도 하지만 싫어하게 하기도 한다.

내틱의 부동산 중개인 토리 키스씨는 “남동부, 텍사스 등지의 사람들은 지하실(basement)을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고 말한다. 일부 뉴잉글랜드에서는 지하실을 다운셀러(down cellar)라고 하기도 한다. 여러가지 다른 집 째뽕 스타일에 사람들은 이를 호기심있게 보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또한 보스톤 아파트 렌트시 부담하는 중계인 수수료, 첫달 및 마지막 달 렌트비 부담 등에 놀란다.

복잡한 도로

보스톤의 도로는 정말 최악의 조합이다. 93번 다운타운 터널을 통해 약속 장소를 가야한다면 길을 잃을 것을 대비해 30분 정도의 여유를 두

는 것이 좋을 정도다.

93번 사우스(South)로 계속가다 보면 어느 순간 93번 사우스이지만 95번 노스(North)이기도 한 고속도로를 만나게 된다. 한길이 방향이 다른 고속도로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곳이 또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95번 노스 방향의 고속도로로 변해 버린다. 거꾸로 95번 사우스로 계속 가다보면 93번 노스로 변하기도 한다.

보스톤글로벌에 기고한 일리노이 주 출신 쟈 노턴 씨는 “2003년 케이프 브리지로 이사했을 때 주로 매스엡(매사추세츠 예비뉴)을 오르내리면서 길을 잃었다. 그런데 하버드 스퀘어에 이르러서 길이 그렇게 변할지는 정말 몰랐고 결국 2시간 반이나 길을 헤맸어야 했다” 고 털어놨다.

뉴욕에서 이사온 민디 에클러씨는 “길거리에 스트리트 사인이 없다” 고 불평했다. 그것보다 보스톤에는 너무 잦은 중복된 길 이름이 많다. 워싱턴 스트리트는 너무 많아 차이나 타운을 가려다 브라이언의 세인트 엘리자베스메디컬센터 앞에 있는 워싱턴 스트리트로 가는 경우

도 많다.(브라이언은 보스톤의 한 지역이지만 여전히 보스톤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다. 보스톤의 한 지역 구인 올스턴의 하버드 예비뉴는 바로 옆타운인 브루클라인에 접어들면서 길 이름이 하버드 스트리트로 바뀐다.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 예비뉴와 하버드 스트리트를 혼동한다. 심지어 과거 보스톤 시장에 출마했던 샘윤은 올스턴 하버드 예비뉴에서 있었던 행사에 늦었던 적이 있다. 그가 갔던 곳은 하버드 예비뉴가 아니라 하버드 스트리트였다.

보스톤 로컬에 대한 과다한 추종

로스트 비프(roast beef), 던킨 커피, 겨울에도 마시는 아이스크림, 캔들핀 볼링(Candlepin Bowling), 바 피자(bar pizza, 약 10인치 정도의 작은 사이즈 피자)로 얇고 바삭바삭하며 피자 끝이 몽툰하지 않은 피자), 등은 매사추세츠와 뉴잉글랜드만의 특징이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밀크셰이크와 프라페(frappe, 보스톤 및 뉴잉글랜드에서는 이를 ‘프랩’이라 발음한다), 보스톤에서는 밀

크셰이크를 원하면 ‘프랩’을 달라고 해야 한다. 특히 웨스트포드의 킴볼팜 등의 뉴잉글랜드 아이스크림 상점에서는 ‘프랩’을 달라고 해야 한다.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밀크셰이크는 아이스크림을 넣지 않고 우유와 시럽을 넣는 것을 칭한다. 로드아일랜드에서는 이를 캐비닛(cabinet)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던킨에서 ‘스몰’ 사이즈가 스타벅스에서는 ‘몰’인 것과 유사하다.

작은 리버럴 아트 칼리지, 올스턴 크리스마스(9월 1일), 이베큐에이션 데이(Evacuation Day, 3/17, 보스톤 서 영국군 철수 기념, 서퓙카운티와 서머빌 공립학교만 쉬는 날) 그리고 세인트 패트릭스데이 등도 보스톤만의 특징이다.

뉴잉글랜드만의 독특한 명칭

커네티컷에 사는 한 여성도 보스톤에 오기 전까지 머드룸(mudroom)을 들어보지 못했다. 머드룸은 진흙이 묻은 장화와 신발 그리고 두꺼운 겂옷 등을 놓는 방 또는 장소를 칭한다. 상당수 구형 주택은 이 머드룸이 구비되어 있다. 머드룸과 더

불어 머드시즌(mud season)도 있다. 이는 겨울과 봄사이 아직 채 봄이 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시기를 이른다.

지미스(Jimmies)는 아이스크림 위에 뿌리는 스프링클을 말하며 버블러스(Bubblers)는 물을 마시는 워터파운틴을 말한다.

“뱅어유이(bang a 'uey!)”는 차를 돌려라 즉 유턴을 하란 말이다. 또한 서브(sub) 샌드위치를 칭하는 “그라인더(Grinders)” 또한 다른 도시 사람들에게는 낯설다 보스톤 일부에서는 스푸키(spuckie)라고도 한다. 또한 리커스토어를 팩키(packie)라 칭한다. 쇼핑카트를 독특하게 캐리지(carriage)라고 칭한다. 회전교차로(round about)를 로터리(Rotary)라고 부른다.

보스톤만의 해독할 수 없는 독특한 액센트

보스톤은 알(r) 발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명하다. 그렇지만 아래의 문장을 쉽게 알아 듣거나 해석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보스톤글로벌의 기자도 아무도 뭐라하는지 모를테니 혼 ▶▶11면으로 계속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요가씨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체중감량에 성공하려면 주 1회는 강도 높여 운동하세요!

“나름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도대체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는게 적당 할까요? 전 매일 하는 건 힘들더라고요.”

“요가하면 정말 살 빠지나요?”

제 라이브 줌수업 후 Q&A때,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나 제 SNS로 자주 받는 질문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 지속가능한 운동을 찾아 주 2-3회 꾸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대신 적어도 1회는 다른 날보다 강도를 한단계 높여 진행해주는 것이 근력향상과 체중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기존의 10-20분 영상이 아닌 1시간 짜리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풀영상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상체 근력을 강화시키고 탄력있는 팔과 아름다운 어깨라인을 만들어 주는 상체 운동을 집중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아래 영상을 찾아 보시면서 따라하면 더 쉬워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한 후, 최근 영상 중, 파워절정 60분요가편을 찾아 꼭 따라해보세요.

1. 벽을댄 엘보 푸쉬업 - 출렁이는 팔뚝살과 겨드랑이살, 부유지방을 말끔히 정리해주는 여성들을 위한 상체 운동으로 평소 바닥에서 푸쉬업이 힘들었던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체운동입니다.

1단계 팔꿈치를 어깨와 비슷한 높이에 두고 팔꿈치를 벽에 가져간다.

2단계 발꿈치를 든 다음, 두 손의 엄지와 검지를 만나게 해 삼각형 모양을 만들고 그 삼각형이 내 이마에 위치하게 한다.

3단계 숨을 내쉬며 손바닥으로 벽을 강하게 밀어내며 팔을 완전히 펴내고, 팔꿈치와 겨드



랑이를 강하게 조여낸다.

4단계 영상을 보며 1-2세트 더 반복해주시고, 와이드 푸쉬업도 함께 따라해주세요.

주의! 복부도 함께 수축하며 최대한 손바닥으로 강하게 벽을 밀어내며 팔과 어깨, 가슴, 겨드랑이 주변의 근육을 활성화시킨다.

2 벽을댄 가슴, 어깨 스트레칭 - 운동과 함께 스트레칭은 꼭 필수로 같이 해주셔야 운동 후 몸이 더 개운하고 다음날 컨디션도 좋다는 사실! 매트 없이도 할 수 있으니 수시로 벽이용해 어깨 열어주세요.

1단계 두가지 상체 운동이 끝나면 두팔을 벌리고 벽 모서리에 가까이 갑니다.

2단계 두팔이 90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깨와 팔꿈치를 같은 선상에 놓아줍니다.

3단계 한 발을 앞으로 가져간 후, 가슴을 모서리 쪽으로 밀어줍니다.

주의! 목의 긴장은 풀고, 내쉬는 숨에 가슴을 더 앞으로 밀어내고 이때 가슴과 어깨 앞면이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껴보세요.

4단계 3-5호흡 정도 흘딩하고 진행하고 다리를 바꿔서 한번 더 해줍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상체 근육을 키우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근력이 부족해 바닥에서 하는 플랭크나 푸쉬업은 운동 초보자들에게 늘 도전입니다. 코어 근육이 어느정도 생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벽을 대고 하는 푸쉬업 자세로 충분히 근력을 키워주면 다른 상체 운동을 할 때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도 좋지만 새해에는 라이브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 교정도 받고 싶다면?

하연샘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온라인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클래스 의장점

1.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의 효과

2. 꾸준한 회원관리로 지속적인 운동루틴을 생활화하도록 격려

3.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개인 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신청 가능)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 & 필라테스' 수업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ee@mw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꿈의 집을 Compass Coming Soon 으로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ompass.com에서는 Compass Coming Soon을 통하여 마켓에 곧 나올 매물들의 정보를 미리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은 당사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매물들은 미리 선별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Compass Coming Soon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Catch the first glimp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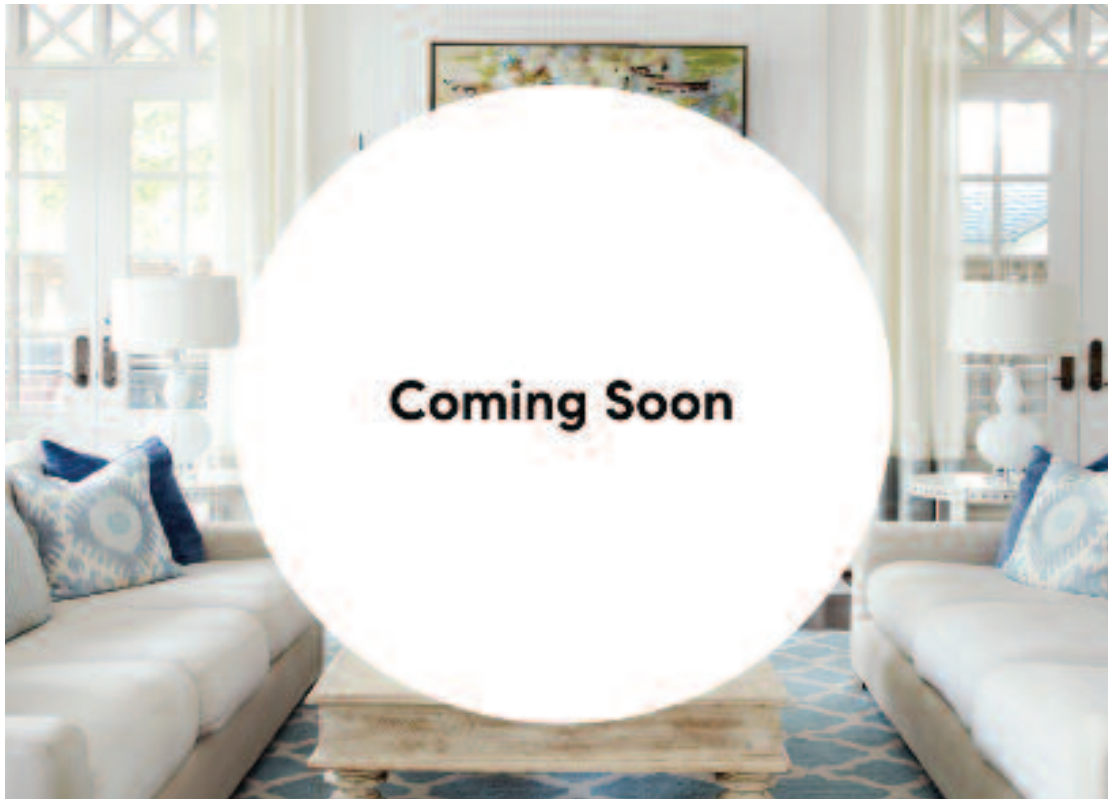
Compass Coming Soon 목록의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Compass Coming Soon 으로 시작하므로, 다른 구매자보다 먼저 검색하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See the full market

Compass Coming Soon 목록은 한곳 Compass.com에서만 볼 수 있으므로, 항상 당사 사이트에서 시장에 대한 가장 완벽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Streamline your search

Compass.com의 저장된 검색을 사용하여 꿈의 집을 놓칠 염려가 없습니다. 선호하는 목록 기준을 쉽게 설정하고 새로운 Compass Coming Soon 목록이 게시될 때마다 알림을 받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Compass 어카운트 셋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
COMING SOON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오래 살아도 모르는 보스톤 사람들만의 독특한 문화

▶▶8면에 이어서

자만 아는 것이 최고일 것이라고 마지막에 덧붙인 이유다.

(As a Boston child, you were probably told to go down cellar to take out the barrels. Your mom carried her F-lene's charge cards in a pocka-book. Your nana sat in the front room with her clickah and police scanner. You pushed a carriage through De-Moulases. Best just keep all that to yourself because nobody knows what you're talking about.)

:보스톤 토박이로서 아마도 지하실에 가서 통을 가져오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엄마는 포켓북에 플린스(파산한 매사추세츠 백화점 플린스 베이스먼트(Filene's Basement) 크레딧카드를 가지고 다녔을 것이고, 할머니는 클리카맥 주와 라디오 리시버를 들고 앞방에 앉아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마켓바스켓에서 쇼핑카트를 밀었을 것이다.)

독특한 타운 이름들

한인들이 흔히 발음하는 빌러리카(Billerica)는 '빌리카' 로 불리

다. 한 타지에서 온 미국인은 이것이 남성 Bill Ricka의 이름인 줄 알았다고 표현했다. 진태원 전 뉴햄프셔 한인회장은 보스톤코리아에서 '빌리카' 로 표기한 것에 대해 '빌리카' 로 표기해야 맞다고 지적해 주었다. 고유명사의 경우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많은 한인들이 빌리카로 인지하고 있는 관계로 언어의 사회성을 고려해 빌리카를 유지한다고 이 자리를 빌어 답을 드린다. 그러나 레딩 (Reading), 우스터 (Worcester), 글러스터(Gloucester)등의 경우 한인들이 이렇게 발음한다.

행위적 불일치

매사추세츠주는 미국내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곳이다. 그러나 가끔 그런 교육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 바보 같은 행위들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도로에서 시속 85마일로 달리는 차를 만나기 일수며 깜박이도 없이 (no blinkah) 끼어들다. 또한 신호가 노란불일 때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다. 보행자들은 시도 때도없이



이 차도를 횡단한다.

또한 보스톤 주차 장소를 자기의 것으로 점찍기 위해 의자나 기타 물품을 놓으며 세일즈 텍스트를 아끼기 위해 뉴햄프셔에 가서 면세로 가득 사오면서 매사추세츠 고향 사람이 아니면 잘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

날씨

보스톤의 겨울은 오후 4시면 해가 지고 보스톤의 여름에는 정말 일찍 해가 뜬다. 이런 문화를 반영하듯 비교적 추운 날씨에서 아이들이 과거침없이 화씨 40도대에서도 돌

아다닌다. 심지어 화씨 0도인 추운 날 아침에도 워커(Walker)로 아이들과 함께 걸어서 학교에 등교시키는 부모가 상당수다.

특히 겨울철 눈치우기가 잦은 보스톤의 도로는 봄철에 가까이 갈수록 최악이 된다. 오하이오주 남동쪽 출신인 한 독자는 "이처럼 돈이 풍부한 주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쁜 포장 도로를 유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웨스트버지니아 출신의 한 남성도 "매사추세츠로 이사하면서 평생 최악의 도로를 경험했다" 고 털어냈다.

그러나 봄철이면 모든 도로는 새롭게 포장을 한다. 말끔하게 단장하고 마치 겨울은 없었던 것처럼 여름과 가을을 즐긴다. 보스톤에는 유난히 유리로 둘러싸인 3시즌 룸(three season room)이 많다. 적어도 봄, 여름, 가을만큼은 환상적인 공간이다. 어쩌면 3시즌은 더없이 살기 좋은 곳이 보스톤일 것이다.

보스톤만의 독특한 문화를 더 알고 있는 한인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닷컴 댓글에 덧붙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editor@bostonkorea.com



2022 전국 수학 경시대회

주최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가 2022 전국 수학경시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과 후원을 바랍니다.



Math Grades 4-8:
Competition: April 9, 2022

Math Grades 9-11:
Competition: April 10, 2022

Register by: March 31, 2022
<https://nmsc.ksea.org/>

Contact: nmscinfo@ksea.org

후원 : Hanwha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가상화폐 연구 행정명령... 디지털 달러 시대 열리나

"연방정부 차원 첫 디지털 자산 전략 수립...미국 리더십 강화 기회"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으로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CD) 도입 검토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공신력을 담보하고 법정화폐로 취급되는 달러화 CBCD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자산은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세계 금융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

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이유에서 가상 자산의 위험과 잠재적 혜택에 대해 전체 정부 차원 접근법의 큰 틀을 잡기 위해 첫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재무부를 비롯한 다른 금융 기관들이 금융 안정성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가상 화폐의 영향을 분석할 것을 지시했다.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제이크 쉐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명령으로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첫 디지털 자산 전략이 수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스템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민주적 가치와 부합하며 미국의 세계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혹한 경제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가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 화폐를 활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당국자들은 그간 러시아가 가상 화폐를 이용해 제재를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가능성을 부인해 왔다.

금융계에서는 결국 '디지털 달러'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백악관은 현재 미국 성인의 16%, 특히 18~29세의 경우 43%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월 '디지털 달러'의 장단점을 설명한 백서를 발간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백서는 디지털 달러화의 도입으로 가계와 기업들이 안전한 전자 지급·결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위해 사생활 보호 문제, 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한 대처 등의 해결과제를 언급했다.

kyunghee@yna.co.kr

미 2월 소비자물가 7.9% ↑ ...우크라이나 전쟁 속도 40년만에 최대폭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또 40년 만의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 노동부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7.9% 급등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1982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지난 1월 세운 40년 만의 최대폭 상승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전월(7.5%)보다 오름폭이 오른 것은 물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8%도 상회했다.

전월 대비로는 0.8% 올라 역시 시장 전망치(0.7% 상승)를 웃돌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4%, 전월보다 0.5%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식료품, 아파트 월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가격 급등이 나타났다.

식음료는 전월보다 1% 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주거 비용은 전년 동월보다 4.7% 올라 1991년 5월

이후 31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휘발유는 한 달 만에 6.6%나 치솟았다. 휘발유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은 전월보다 3.5% 올라 2월 CPI 상승분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이 2월 말이라는 점에서 이번 통계에는 전쟁으로 폭등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일부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쟁 장기화와 서방의 제재로 인한 유가 등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세는 3월 이후 통계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그동안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2월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강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전쟁과 제재에 따른 공급망 쇼크로 치솟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조만간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수치는 4년 만의 첫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선행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신신마트 당일배송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순두부 (\$7.99)
육개장 (\$9.99)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싱싱한 스시, 사시미 배달
즉석 김밥, 홈메이드 만두 등
당일 배송 가능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메주콩, 검정콩 \$29.99/5LB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마른대추 \$29.99/1bag
고춧가루 \$69.99/3.8LB

미, 우크라 '초당적 지지'...냉소하던 공화당 돌변

"공화, 최악 부패국 비난하다 이젠 '자유 수호자' 자처" 상전벽해 민주·공화 의원 합세에 전쟁 확대될라 우려까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에 비판적이었던 미 공화당 내부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때만 해도 미 공화당의원들은 우크라이나를 범죄 집권층과 불법적인 정치인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로 치부했다.

짐 조던 하원의원은 2019년 우크라이나를 "지구상에 가장 부패한 세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소추를 당했던 게 주된 이유였다.

공화당은 과거 바이든 부자(父子)와 과거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의 유착설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부자에 대한 수사를 종용하면서 이를 군사원조와 연결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깎아내리는 이 같은 목소리는 러시아 침공 이후 사라지고 있다.

공화당원들은 미국의 군사 지원 증강을 주장하는가 하면 앞다퉈 우크라이나 지도층과 강한 결속감을 나타내고 있다.

로저 위커 하원의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지지하고 나섰고, 릭 스톱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미 지상군 배

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암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랫동안 우크라이나를 옹호해 왔던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상전벽해"라며 오히려 공화당 내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의도와 달리 확전을 부를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댄 캘드웰 스탠드 투게터 외교정책 부의장도 "두 정당으로부터 나오는 정책들이 핵무장을 한 러시아와의 분쟁으로 내몰지는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군대를 집결시킬 때만 해도 맥 로젠데일, 로렌 보버트, 폴 고사, 토머스 매시, 머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 등은 미국이 러시아와 충돌하는 데 반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극우주의자들도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지난 7일 극우 성향의 그린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무고한 시민들이 푸틴이 일으킨 전쟁으로 살해되고 있다. 미국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톰 코튼 상원의원도 "정당한 이유도 없는 전쟁에 대해 푸틴은 대가를



9일(현지시간) 폴란드 동남부 도시 메디카에서 국경을 넘어 온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타지역 이동을 기다리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이날 기준 우크라이나에서 이웃 국가로 탈출한 난민 수가 215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약 130만 명이 폴란드로 피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치려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공화당이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그들의 극명한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부패는 대부분 정치인이나 기업인들과 연

관돼 있다"며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경우 어린이들이 폭탄에 죽어나고 있다. 이는 (부패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문제가 많고, 부패한 곳이 지금은 자유의 수호자가 되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의 달라진 분위기를 언급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지지자인 크리스토퍼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때 젤렌스키 정부를 깎아내릴 때에 침묵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우크라이나 방위와 젤렌스키 대통령을 조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니클로, 러 잔류 결정 철화...골드만삭스도 철수

(서울·뉴욕=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강건택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째에 접어들면서 '탈러시아' 대열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글로벌 의류기업들과 달리 러시아 시장에 남겠다고 밝혔던 일본 패션브랜드 유니클로가 입장을 바꿔 현지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고,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 중 처음으로 골드만삭스가 러시아 시장에서 발을 빼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은 성명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침략을 규탄한다"며 러시아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 러시아에 진출한 패스트리테일링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러시아 전역에 50개 유니클로 매장을 두고 있었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매장 수다. 이날 발표는 다른 의류 브랜드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는 와중에도 현지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완전히 돌아선 것이다.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시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5년만의 정권교체

▶▶1면에 이어서

윤 후보가 처음으로 역전하면서 0.6~1.0%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개표율 95%를 넘어설 때까지도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는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오전 3시 50분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패배를 선언했다.

곧바로 윤 당선인은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지지자들 앞에서 "밤이 아주 길었다. 그동안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이라며 간략한 소감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차량에 탑승해 당 개표 상황실이 차려진 국회 도서관으로 이동했다.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를 기록한 신승이다.

1~2위 후보 간 격차가 가장 작았던 선거는 1997년의 15대 대선이었다.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는 40.27%의 득표율로 38.74%를 얻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신승을 거뒀다. 표차는 39만557표, 득표율차는 1.53%포인트였다.

두 번째로 격차가 작았던 선거는 1963년 5대 대선으로, 당시 박정희 민주공화당 후보가 윤보선 민정당 후보를 1.55%포인트 격차로 눌렀다.

이번 대선이 유력한 제3후보가 없는 가운데 사실상 보수와 진보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면서 진영결집이 극대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이념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젠더 갈등까지 사회갈

등의 골을 깊어진 것은 새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여소야대 의회지형 속에서 '협치'와 '통합'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민심이 표출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궤멸 위기로까지 내몰렸던 보수진영으로선 이번 대선으로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이로써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로 보수와 민주 진영이 10년씩 번갈아 집권했던 '10년 주기론'은 깨지게 됐다.

2년째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되레 집권세력 심판론으로 민심의 무게추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본인로서는 '장외 0선'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대권을 거머쥐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작년 6월 29일 정권교체를 기치로 내걸고 정치참여를 공식화하며 대선도전을 선언한 지 불과 8개월 만이다.

앞선 13~19대 전·현직 대통령들이 국회의원을 최소 1차례 이상 경험했고 대부분 당대표까지 역임하며 여의도 정치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것과 달리, 의회정치 경력이 전무한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된 '엘리트 검사'로서 되레 정권교체의 기수 역할을 맡은 것도 역설적이다.

무엇보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한 진보정권을 교체하면서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경제·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새 대통령 당선인이 맞닥뜨린 도전과제는 만만치 않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총 선거인수 4천419만7천692명 가운데 3천407만1천400명이 투표해 7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77.2%)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작 본 투표 열기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탓에 투표율 '80%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권역별로는 진보와 보수의 '뺨발'으로 각각 불리는 호남·영남이 투표율 상위권을 휩쓸었다.

한편, 대선과 함께 실시된 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

힘이 사실상 석권했다.

서울 종로에서는 최재형 후보, 경기 안성에서는 김학용 후보,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정우택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서울 서초갑에서는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의 당선에 유력시됐다.

국민의힘이 귀족사유로 무공천한 대구 중·남구에서는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다.

jun@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MAR. 11th - MAR. 17th, 2022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LUCKY ST. PATRICK'S DAY SPINACH PANCAKES

FOUR-LEAF CLOVERS ARE A RARITY BUT NOT TODAY. MAKE YOUR OWN LUCK AND ADD SPINACH TO YOUR DIET, KOREAN PANCAKE STYLE!
성 패트릭의 날을 기념하여 H 마트의 황해 맛과 건강에 좋은 네잎 클로버 모양의 시금치권을 만들어보세요!



3월 13일(일요일) 새벽 2시부터 썬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시계를 1시간 앞으로 당겨놓으세요.
SPRING BRINGS DAYLIGHT SAVINGS Please turn your docks forward 1 hour on March 13th (Sunday) at 2am.

Pineapple 파인애플 EA \$2.99	Persian Cucumber 페르시아인 오이 14 OZ/PKG 2 \$5.00 FOR	Korean Pear 한국산 신고배 PRODUCT OF KOREA 9 CNT/BOX \$36.99	White Cabbage 양배추 LB \$0.99	Korean Pear 한국산 신고배 PRODUCT OF KOREA 3 EA/PKG \$12.99
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LB \$0.79	Heirloom Navel Oranges 헤어loom 네이벨 오렌지 6 CNT/PKG \$4.99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2.49	Kabocha 단호박 LB \$0.99	SOONYEONWON Tofu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1.4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oneless Beef Ribeye Steak 생 뼈없는 소등심 (스테이크용) SIZE 10 UP/LB \$12.99	Fresh Ox Tail 생 소꼬리 LB \$12.99
Fresh Pork Single Belly 생살겹살 (수육용) CHUNK/LB \$7.99	Fresh Whole Chicken 생 통닭 LB \$1.99
Frozen Beef Bones 냉동 사골 LB \$1.49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양념 LA 갈비 LB \$16.99

심심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Head-on Shrimp 냉동 머리새우 SIZE 30-40/LB \$5.99	Frozen Mussels in the Half Shell 냉동 반갠홍합 1.5 LB/PKG \$9.99
Frozen Unagi Kabayaki 냉동 우나기 6 OZ/PKG \$8.99	Frozen Loligo Squid 냉동 한치 LB \$7.99
Frozen Scampi Shrimp 냉동 스템피 새우 SIZE 11-15/LB \$9.99	Striped Bass 양식 농어 FARMED/LB \$7.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4.99 15 LB	H MART SMART CARD ONLY CJ Hebbahn Cooked White Rice CJ 햇반 7.4 OZ X 12 EA/BOX \$12.99
H MART SMART CARD ONLY HAIO Frozen Seasoned Pollack Roe 해오름 명란젓 2.2 LB \$22.99	H MART SMART CARD ONLY HAIO Pancake/Frying Batter Mix 해오름 부침가루/튀김가루 2 LB \$1.99

KYONG GI MI Medium Grain White Rice 경기미 40 LB \$34.99	HAIO Beef Short Rib/Bulgogi Marinade 해오름 소갈비/소불고기 양념 1.85 LB \$4.99	HANSANG Frozen Seasoned Small Octopus 한살 동우 얼짱 주꾸미 1.43 LB \$16.99	HAIOREUM GOMPYO Wheat Flour 해오름 곰포종려 밀가루 5.5 LB \$3.99	HAIO Canned Mackerel Pike 해오름 공치 통조림 14.1 OZ \$1.99
YOODONG Silkworm Pupa in Sauce 유동 뽕배기 번데기탕 \$1.99	HAIO Yuza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 \$5.99	DAMIZLE Walnut, Almond Adlay Tea 다미들 호두 아몬드 솔무차 50 STICKS/PKG \$12.99	KWANGDONG Vita 500 Vitamin Drink 광동제약 비타500 100 mL X 30 BTLs/PKG \$5.99	SUNGGYUNG FOOD Pepper Chips 성광식품 고추부각 2.12 OZ \$2.99
K TOWN Sesame & Coconut Cracker 케이타운 고소어 11.29 OZ \$2.99	CROWN Corn Chips 크라운 콘칩 10개팩 15.52 OZ 10 EA/PKG \$9.99	HELLO HOME Clear Mixing Bowl 헬로홈 클리어 믹싱볼 \$5.99 \$3.99 30 CM/EA	PERIOE Himalaya Pinksalt Toothpaste 페리오 Himalaya 핑크솔트 치약 \$5.99 \$3.99 3.52 OZ/EA	SHOES ME Cushion Slippers 슈즈미 쿠션 슬리퍼 \$17.99 \$12.99 /EA

Taste the tradition of Bibigo Kimchi at H Mart
H Mart에서 비비고 김치를 맛보세요.

CUSTOMER SERVICE
1.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ex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용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부사장 애나 정
617.780.1675
Boston Branch Manager
anna@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Steve Kwon
508.326.6285
Director of HR/Customer relationship
Stev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Manager of Hadley Branch
kathysong2019@gmail.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콥 신 617.710.8836
jacob@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송문주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샬리 임
781.690.4309
hyunmi@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레이첼 김
617.852.7485
rachelkim@bostonpremierrealty.com



Jason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03.83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8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ng@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Mr. M. Malden, MA ”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WEEKLY SPECIAL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최고의 가격 할인 UNBEATABLE PRICE!



Smart Card
members only
3월 10일부터
한정 판매

~~REG. \$7.99~~ →

해오름 유자차 & 생강차 / 2.2 LB
Buy any 2 for
\$9.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간단하고 신속한

주택 용자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켈리 김 입니다.
주택에 관한 모든 용자들 도와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 · 낮은 이자율 · 최상의 결과
개인별 맞춤 용자 · 캐쉬아웃

바로 연락 주세요.

“ 급하게 시작한 상태이고 준비가 미약한 제 상태에서 괜찮은 집을 찾았지만 주변에서 안될수도 있다고 했지만 제 상황을 맞춰서 시간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켈리님을보고 만나지도 않았고 느껴지는 강한믿음!! 이분은 정말 이분야에서 정말 최고이신것 같습니다. 미국말이 더 편하시분인데도 한국말로 자세히 제가 알수 있도록 언제나 빠르게 진행해주시고,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 Lim

”



켈리 김

한국어, 영어 가능
 주택대출 담당 - nmls #2027241
 FL, MA, ME, NJ, NH, RI, TX 라이선스.
 이메일: kkimthielen@radiusgrp.com
 전화: 617.733.5014
 한국어 웹사이트: info.radiusgrp.com/ko/kthielen
 English Website: 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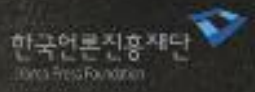


600 Longwater Drive, Suite 107, Norwell, MA 02061

Kellie Kim Thielen, Loan Officer - NMLS # 2027241; Licensed in MA, ME, NH, NJ, RI, TX. Employed by radius financial group inc., NMLS #1846., FL Lender/ Servicer MLD309/MLD1562; MA Lender/Broker MC1846 ME SLM6596; NH 7986-MB; NJ Residential Mortgage Lender License and RMLA-Licensed Mortgage Servicer Registration 1846; RI Licensed Lender/Broker 20031544LL/20183611LB; TX SML Mortgage Banker Registration Equal Housing Lender.



이 광고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보제공 수수료와 지원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오후 6:30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오후 6:30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인 김규연 님이 제안한 광고라고 합니다. - 2021 광고광고 공모전 수상작



성안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성안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https://bit.ly/2j16ZdT>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58-2711

45 Ash St. Newton MA 02458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parishchurch.org
www.facebook.com/stadparish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를 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깝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JUST LISTED:
FANTASTIC NEW BUSINESS
OPPORTUNITY IN BROOKLINE!
드라이클리닝 사업
\$250,000.00



JIN CHUNG, REALTOR®



(857) 231 - 3096

JINCHUNG@KW.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6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파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골프 레슨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2022년도 장학생 모집

내일을 이끌 미래의 주역들을 찾습니다

선발대상 한국인 유학생, 한국계 미국인, 1.5세, 2세 및 입양자로서
학업성적과 리더십이 출중하고 한국 전통 유산을 존중하는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고교 11·12학년 학생

*뉴잉글랜드 (MA, NH, RI, ME, VT, CT) 거주자 우선 선발

장학금액 \$2,000-3,000

지원방법 온라인 제출 (신청서, 성적표, 이력서, 2쪽 이내 에세이 등)

마감일자 5월 1일 (일)

For detailed information and application forms,
please visit our website: www.snuaan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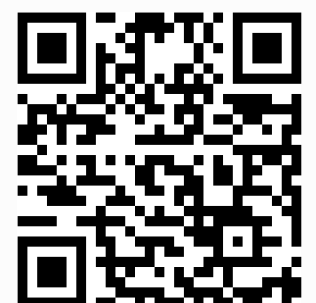


백신을 접종해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세요

무료 코로나-19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신분증, 건강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진접종장소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으세요
[MASS.GOV/COVIDVACCINE](https://mass.gov/covidvaccine)



Asian American Civic Association



Eastern Bank

JOIN US FOR GOOD



VaxFinder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76) 실패하는 투자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연준 이자율 증가, 자재 공급 부족, 미친(?) 듯한 집값 상승, 변형된 오미크론, 30년 만의 높은 물가 상승,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식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지난 13년 동안 주식시장은 연평균 16%씩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일반 투자자는 투자하면 좋은 종목에 투자해야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투자로 돈 벌었다는 집안 식구와 친지들로부터 좋은 종목 정보를 얻고자 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주식 미디어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투자모임에도 많은 정성과 시간을 투자한다.

투자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우연히 상승한 시장에서 돈이 붙어났기 때문인데 본인이 똑똑해서 좋은 종목을 선택한 것으로 착각한다. 이런 이유로 상승하는 주식시장에선 너도나도 주식 전문가(?)가 되지만, 주식 대박을 기대하며 한 투자는 하락하는 시장에선 마음이 심란해진다. 심지어 편히 잠도

못 잔다. 투자가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처럼 투자했기 때문이며 결국에는 몸과 마음은 물론 나의 소중한 돈도 잃어버릴 확률이 매우 높다.

오랜 경제연구소 경험과 개인 투자자를 도와주며 얻은 교훈은 '투자는 좋은 곳에 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대부분 해서는 안 되는 투자' 에 하기 때문이다. 투자 실수가 무엇인지 설명 없이 나열해 본다.

- *뚜렷한 투자 목적(Goal)이 없음
- *투자 종목의 위험성(Risk)을 모름
- *분산투자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분산 투자
 - *개별적인 회사 주식(Individual Company Stock)에 투자
 - *주변 사람이나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주식 종목에 투자
 - *듣기 좋고 유혹적인 투자상품(Financial Product)에 투자
 - *비상금(Emergency Fund) 마련 없이 주식투자

- *투자하는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심
- *원금 보장(Guarantee)한다는 금융상품에 투자
- *주식시장이 두려워서 투자 포기
- *살 때 투자하고 비쌀 때 팔려고 하는 마음(Market Timing)
- *가상적인 수익(Illustration)도표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환상
- *재정설계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막연한 생각과 기대
- *5년 이내에 필요한 돈을 투자 혹은 빚(Margin)을 내서 투자
- *채권(Bond)투자 생략
- *부동산 투자로 집세(Rent)를 받아 노후 대책 계획
- *과거 투자종목의 수익률에 의해서 투자
-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투자
- *감정(Emotion)에 의한 투자 결정
-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는 금융상품에

투자
*투자하며 발생하는 숨어있는 모든(Total) 비용을 알지 못함
지난 2019년 31.5%, 2020년 18.4%, 2021년 28.7%로 단 3년 만에 100% 증가로 투자 돈이 2배로 붙어났 수익률이다. 3년 동안 주식시장이 하락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2020년 3월에는 무려 34%가 하락한 적도 있었다. 이런 놀라운 수익률은 투자 종목을 잘 선택해서 투자한 결과가 결코 아니다. 미국 500대 기업에 투자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투자이다.
우리가 나무를 심은 다음에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린다. 뿌리가 잘 내렸는지 땅을 파서 자주 확인하지 않는다. 나무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도 이와 비슷하다. 자산분배와 분산투자로 형성된 포트폴리오는 시간이 감에 따라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과거 주식시장이 분명 보여준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3세 풍월주(風月主) 군관공(軍官公)(8)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화랑세기에 기록된 김군관의 가계를 보면 보현공주(普賢公主)의 후손이라는 것이 몇 번이나 강조되어 있다. 22세 풍월주(風月主) 김양도가 군관을 부제로 발탁할 때에 여러 상선들이 반대를 했다. 이에 김양도는 “보현공의 사손(嗣孫)이 부제가 되지 못한다면 곧 누가 되겠는가?” 라고 일갈하면서, 당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즉 ‘경국지색’ 으로 기록된 첩천운을 군관에게 아내로 주면서까지 그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왜 김군관을 보현공주의 사손이라고 했는지 보현공주를 중심으로 보면 그의 세계(世系)를 이해하기가 조금 쉽다. 김군관은 보현공주로부터 부계나 모계로만 이어진 후손이 아니고 교차되어 ‘이어진 후손, 사손(嗣孫)’ 이다. 오히려 그의 모계로 보면 정통성이 더 확보되는데, 굳이 보현공주의 사손이라고 강조한데는 분명히 그 연유가 있을 텐데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김군관의 어머니는 석명이고, 석명의 어머니는 보명이며, 보명의 어머니는 지소태후이다. 지소는 법흥왕의 유일한 적녀로 진골정통의 종주(宗主)이다.

보현공주는 지증왕과 연제왕후의 딸이다. 어릴적에 궁에서 오빠인 김원종(후에 법흥왕)과의 사이에서 사실공주를 낳았다. 이 사실공주가 삼촌인 임중(374)의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오종(五宗)으로 진흥왕의 이복형제이다. 오종은 비차부(375)의 딸 비란을 아내로 맞아 딸 오란을 낳았다. 오란이 동종(거칠부의 아들)과 결혼하여 동란을 낳았고, 동란이 석명공주를 아내로 맞아 김군관을 낳았다.

374 임중은 법흥왕의 동생으로, 법흥왕의 딸인 지소를 아내로 맞아 삼맥종(진흥왕)을 낳았다. 또 다른 법흥왕의 딸인 사실공주와는 오종을 낳았다.

375 비차부(比次夫)를 8세 풍월주(風月主)의 아버지인 비조부(比助夫)와 동일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 주장에 의문을 제시하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먼저 화랑세기에 기록된 문노의 가계를 보면 아버지 비조부, 할아버지 호조, 증조부 비지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사다함조를 보면 비지가 사다함의 증조부이기도 하다(비지는 묘량과 함께 비량을 낳았고, 비량이 사다함의 조부이다. 그리고 비지는 아내 조리와 문노의 할아버지 호조를 낳았다).

그리고 사다함과 문노의 선대, 즉 그들의 고조부는 비태(比太)로 사다함조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까지는 정확한 기록이 있는데, 그 위대는 탈자가 너무 많아서 문맥상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미해(미사흔, 눌지왕의 동생)의 딸, 내물왕(제17대왕), 후궁, 산황(山凰) 출신, 실성왕(제18대왕), 심황(心凰) 실상공의 딸이라고 한다) 등의 인물들이 등장

하는데, 그들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문노는 나이 마흔이 넘어 거칠부의 딸 윤공과 결혼하여 진골로 신분 상승을 하면 서 아들(대강, 충강, 금강) 셋과 딸(윤강, 현강, 신강) 셋을 낳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 금강(金剛) 상대등을 지냈다(655~660년).

비차부(比次夫)에 대한 기록은 단양적성비(국보 제198호)에 이름이 이사부, 탐지, 김무력 등과 함께 올라있다. 그리고 삼국사기(거칠부 열전)에는, 551년 대야찬(5등급)으로 대각간(1등급) 거칠부와 구진(仇珍, 각간(2등급) 비태(比太, 잡찬(3등급) 탐지(耽知)와 비서(非西, 파진찬(4등급) 노부(奴夫)와 서력부(西力夫, 아찬(6등급) 미진부(未珍) 등과 함께 고구려를 침공하여 한강 상류지역 10군을 획득하는데 공을 세웠다(지휘관으로 대 고구려 전쟁에서 여러차례 전공을 세웠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미미하여, 더 이상 알 수 없다).

그런데 비차부와 비조부가 동일인이라면, 당시 전쟁에 비조부(비차부)의 증조부인 비태도 같이 참전했다. 과연 가능했을까? 이 비태(比太)가 문노의 고조할아버지 비태와 같은 이름(한자도 같다)이지만 동일인이 아니라고 본다. 문노가 538년에 태어났으니, 그가 551년에는 만13세였다. 13세인 문노의 고조할아버지는 몇 살이었을까? 1대를 20년으로 계산해도, 비태는 당시 90대 중반에 3등급의 잡찬으

로 전쟁터에서 말을 달렸다!?

소명환 교수의 논문 “단양 적성비에 새겨진 비차부는 누구인가?” 등 연관된 글 몇 편을 보면, 그 역시 비차부와 비조부를 동일인으로 보면서, 진주 소씨 대동보인 부소보(扶蘇譜, 1320년, 소정(蘇靖) 제작)를 소개했다. 그의 글을 보면 비차부의 아버지는 해부(解夫, 해부의 아버지는 미고(未古, 미고의 아버지는 덕지(德智, 덕지의 부모는 강선(强宣)과 황아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비태와 덕지가 동일인이고, 미고와 비지, 해부와 호조도 동일인이라는 것이다. 화랑세기에 보면 황아(부모는 눌지왕과 치술공주)가 사촌인 보신과 결혼하고 있었지만, 보신이 너무 어려서 왕의 총신과 사통하여 별지와 덕지(德智)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다. 즉 소명환의 주장은 강선과 ‘왕의 총신’ 이, 황아와 산황, 치술공주와 심황이 동일인이라는 것이다. 또 있다. 문노와 그의 자녀들, 화랑세기와는 달리, 보소보에는 무은이라는 이름으로 알천, 태호, 귀산, 와사부, 문우 등 5남을 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각자 상대등을 지낸 알천(재임 647~654년)과 금강(재임 655~660년)이 동일인이라는 주장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첫주택구입자를 위한 가이드 라인

요즘 바이어들과 일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 셀러스 마켓(Seller's market)이 너무나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첫주택구입자(First time home buyer)들이 미리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려고 한다. 이제 많은 분들에게 집 사시는데 오차 없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 한국에서는 부동산 수수료를 집을 구매하는 분이냐 집을 파는 분 모두 낸다고 알고 있다.

미국에서는 집을 파는 셀러가 모든 수수료를 부담한다. 통상적으로 파는 사람이 내는 수수료를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반반씩 나누어 받게 된다.

2.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 다운페이먼트에는 클로징 비용이 들어있지는 않다. 클로징 비용은 집 가격의 2-3% 정도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오퍼가 수락됐을 때 모기지 대출은행(Lender)에게 어느 정도의 클로징 비용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하도록 한

다.

3. 계약 조건(contingency): 요즘에는 보기 힘들지만 전에는 계약할 때 조건(contingency)을 걸 수가 있었다. 계약 당시 조건은 두 개가 있는데 특별한 상황을 빼고는 인스펙션과 모기지제에 조건을 걸게 된다. 오퍼가 수용되고 나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거나 마음이 바뀌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약 취소를 알려야 한다. 계약 취소를 위한 서류에 사인해야만 한다.

4. 모기지 다운페이먼트(Mortgage Downpayment): 융자(mortgage)를 얻고 집을 살 경우에 다운페이먼트가 미국 계좌에 60일 이상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걸 모르고 계약을 진행했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에 미리 모기지 렌더와 의논해야 한다.

5. 앞으로의 집값: 집값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대체로 오르게 된다. 사람은 앞으로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집을 살까 아니면 렌트를 해야 할까? 이렇게 계산하면 빠르다. 3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라면 구입하는 게 맞다.

6. 유지 관리 비용 고려: 첫 집 구입을 준비

할 때 매달 지출 계획을 짜게 되는데 이때 단독주택일 경우와 콘도일 때가 좀 차이가 있다. 콘도일 경우에는 매달 HOA 비용이 나간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HOA 비용이 많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단독주택일 경우 집값의 1% 정도를 유지비와 보수비로 책정하는 게 좋다.

7. 바른 가이드라인: 첫 주택 구입시에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바이어 에이전트가 꼭 필요하다.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가 비슷할수록 의사소통은 잘 될 것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3월 13일 - 3월 19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미리 낮춰서 바리면</p> <p>●운수: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으세요. 볼을 찾으려고 정신이 달도록 몰아다녔는데 정작 집 앞 화가지에 볼이 있는 격입니다. ●금전: 원하는 것을 미리 낮춰서 바라면 큰 실망이 없습니다. 기대치가 크면 허망해지고 답답해집니다. ●애정: 의미도 방향도 잃은 채로 보내기 쉽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3, 16일 길일. 15, 18일 주의.</p>	<p>소띠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p> <p>●운수: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획의 차질이 생기고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할 수 있으나 결과는 좋습니다.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단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애정: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독이 터지는 것처럼 그동안 억지로 막아두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4, 17일 길일. 16, 19일 주의.</p>	<p>범띠 해결의 실마리를</p> <p>●운수: 무엇이든지 도전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망설이지 말고 내 의지대로 밀고 나가세요. ●금전: 말이 오가던 때 매나 계약 등의 일이 변경될 수가 있겠습니다. 멀리 내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애정: 자신의 밝은 미소가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게 합니다. 미소가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5, 18일 길일. 16, 17일 주의.</p>
<p>토끼띠 큰 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p> <p>●운수: 큰 물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금전: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금전운이 좋아서 지금 회전도 잘 되겠습니다. ●애정: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잘 표현해 보세요. 직설적인 표현보다 오히려 이러한 표현이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4, 19일 길일. 16, 18일 주의.</p>	<p>용띠 지혜롭게 잘 피해 가야</p> <p>●운수: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거나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피해 가야 할 것입니다. ●금전: 큰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니 마음을 비우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현상 유지에 만족하면서 지나가세요. ●애정: 미안한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몰아치면 미안한 생각이 사라지고 화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나침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00, 88, 76, 64, 52, 40년생은 14, 17일 길일. 13, 19일 주의.</p>	<p>뱀띠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p> <p>●운수: 주위의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변화를 자제하고 안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주의해야 합니다. ●애정: 오해를 부르는 일들이 연달아서 생기기 쉬울 것입니다. 스스로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01, 89, 77, 65, 53, 41년생은 13, 18일 길일. 14, 16일 주의.</p>
<p>말띠 더 힘껏 노력해야</p> <p>●운수: 방심하기 쉬운 주입니다.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옛말처럼 더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금전: 현재의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사안일한 태도는 통하지 않는 때이니 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애정: 보편적인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상대가 몰라주는 홀로 하는 사랑은 좀처럼 대우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결국 지치게 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4, 19일 길일. 13, 15일 주의.</p>	<p>양띠 활력과 의욕을 되찾는</p> <p>●운수: 남보다 더 빠르게 뛰어다녀야 할 때입니다. 직업과 관련하여 좋은 일이 있거나 이동수가 있겠습니다. ●금전: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애정: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기다리던 사람과 반가운 재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5, 18일 길일. 13, 16일 주의.</p>	<p>원숭이띠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p> <p>●운수: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고로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금전: 곳곳에 손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뒤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 그 누구와도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 더 가게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6, 19일 길일. 14, 17일 주의.</p>
<p>닭띠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p> <p>●운수: 소낙비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마음의 비가 오락가락하니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전: 당분간은 큰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보낸다는 생각으로 현상 유지를 하는데 신경 써야겠습니다. ●애정: 인연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13, 17일 길일. 14, 18일 주의.</p>	<p>개띠 한 단계 발전하게</p> <p>●운수: 새로운 시작으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됩니다. 너무 넘치거나 지나치지만 않으면 매사 순조롭고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금전: 예상외의 수입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시기이니 바쁘지만, 보람이 있겠습니다. ●애정: 기회가 생기거나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주위를 살펴보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4, 18일 길일. 16, 19일 주의.</p>	<p>돼지띠 무엇보다도 솔직해야</p> <p>●운수: 무엇보다도 솔직해야 합니다. 연행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점수를 쌓게 될 것입니다. ●금전: 기대하고 바라던 것을 이룰 기회가 다가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의 규모는 더 크게 벌어져 마세요. ●애정: 양보하는 실, 실보다는 분위기가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음모수한전을 마셔도 이왕이면 분위기가 있는 곳으로 가보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5, 19일 길일. 14, 17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2/11
캐쉬어 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12/17
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복기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10/29
렉싱턴에 있는 치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이 없으신분은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T. 781-859-9218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김태리·남주혁 '스물다섯 스물하나' 시청률 10% 돌파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김태리·남주혁의 청춘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가 시청률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

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에 방송된 tvN 토일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시청률은 10.9%(비지상과 유료가구)를 기록했다.

전날 방송에서는 나희도(김태리 분)와 백이진(남주혁)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과거 이진이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음성 녹음을 듣게 된 희도는 복잡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면서도 기자로서 사회생활을 하며 어른이 된 이진의 모습에 거리감을 느끼며 고민에 휩싸였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청춘들의 꿈과 사랑을 그린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꾸준히 시청률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인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한 대중들의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밝은 분위기의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진 가운데 등장인물들의 꿈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코로나19로 대중들의 심리가 전반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극화된 이야기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에 대한 선호가 높다"면서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최근 종영한 인기 드라마 '그해 우리는'와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회정 드라마 평론가 또한 "(주인공들이) 꿈을 향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위안을 얻도록 잘 그려낸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대중들도 작품 속 인물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을 받고 싶어하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극 중 나희도는 IMF 사태로 학교 펜싱부가 해체되면서 다른 학교로 전학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백이진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순식간에 '부자집 도련님'에서 '셋방 총각'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끈기있게 현실을 이겨내려 애쓴다.

stopn@yna.co.kr

BTS, 2년반 만에 국내 공연... "오롯이 팬들에 집중"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콘서트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약 2년 반 만에 열리는 공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BTS는 이달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 서울'(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SEOUL) 공연을 시작한다.

2019년 10월 열린 월드투어 이후 약 2년 반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공연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 오랜만에 열리는 공연인 만큼, 소속사는 BTS 멤버들과 팬들이 서로에게 집중하도록 공연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공과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시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33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바라며...

이른 아침 출구조사 발표부터 제20대 대선 당선자가 정해질 때까지 한국의 연합뉴스를 시청하였다. 타국에 사는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 조국의 대사가 아니던가. 아무리 미국에서 잘살고 있다고 해도 내 조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얼마나 깨닫지 않는가 말이다. 전쟁으로 한 순간에 내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피난 길에 오르고 생사를 오가는 숨 쉴이는 생활하는 것을 여러 마스크를 통해 보지 않던가 말이다. 내 조국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어느 당을 응원하기보다는 이낙연 후보를 좋아해 응원을 했었다. 점잖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분이라 보여 마음에 믿음이 갔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대선 후보 토론회를 놓치지 않고 보았다. 내가 특별히 어느 당의 누구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 조국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마음에 간절함으로 있었다. 훌쩍 떨어져 타국에

산다고 그저 나 몰라라 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래도 정치.경제. 문화. 과학 등 세계 속 한국을 늘 관심 있게 보는 것이다.

'내로남불'의 이쪽저쪽의 사건들을 보면서 검증되지 않은 일들로 에너지를 뺏기기는 싫었다. 다만 객관적인 면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타국에서 조국을 바라보는 내가 저 정확히 볼 수 있는 이성적인 눈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말이다. 후보들의 배우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보기도 했었다. 내가 후보자의 아내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또 이렇게 국민들 앞에 올려진 자신과 가족들 그에 따른 반성과 앞으로의 행동을 생각했을 것이다.

남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입장이 된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자유롭지 않은 일인턴가.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드러나는 일이지 않던가. 본인이 선택한 일이 아니었다더라도 감당해야 할 몫이지 않던가. 옛말에 산이 높으면 골

도 깊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던가. 그만큼 자신의 자리만큼 책임지어야 할 어려운 일들도 많음으로 지혜롭게 언행에 책임을 지고 수성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일 것이다.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를 내조하는 역할은 더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국민들이 '비호감 선거'라는 말을 쉬이 던졌던 것처럼, 나 역시도 이런저런 관심의 수위를 높여가며 토론회를 시청하고 여기저기 올려진 평론가들의 글을 읽으며, 참으로 모두가 마음에 안 든다 싶은 생각을 했었다. 결국, 이도 저도 아닐 때는 그 중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공약의 말에 신중을 기하며 듣기 시작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니 사람의 진실을 보고 싶었다. 어느 사람이 진실의 무게가 더 나갈 것인가를 혼자서 추위를 맞춰보았던 것이다. 얼렁뚱땅하는 식의 말보다는 진실함이 배어 있는 쪽을 말이다.

처음부터 대선 결과 발표가 있을 때까지 초반박빙의 상황이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47.8%, 기호 2번의 윤석열 후보는

48.6%였다. 옆치락뚱치락 정말 한치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특별히 지지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진실을 더 말하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친구 교수에게 카톡으로 보냈다. 나는 어느 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진실해 보인다고 말이다. 친구 교수의 답이 왔다. 본인도 1% 정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보내왔다.

'통합과 화합'의 협치 정치가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국회 의석 180석이 민주당이니 그리 만만치 않을 일임을 벌써부터 짐작이 간다. 그러나 패배를 한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인 사말이 참으로 멋졌다.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할 것, 일상회복을 소망한다."고 말이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모든 것은 나의 부족함 때문이고 윤석열 후보에게 당선을 축하하고, 통합과 화합을 바란다는 메시지는 울림이 있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를 드리며 내 조국의 부흥을 기대한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흙과 바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는 난로만 오히려 썰렁했던 시기였다. 덩달아 학과시간은 시들할 수밖에 없었다. 교탁에 오른 선생님을 향해 아이들이 요구했다. 교과서 보단 이야기!

짐짓 망서리던 선생님. 허흠. 헛기침과 아울러 이야기를 풀어 냈다. 들려주는 이야기는 흥미만점인데 한국이야기였다. 조는 아이도 없었고, 듣는 자세가 흔들리는 아이도 없었다. 곧 수업 종료 종이 울렸다. 아쉬움이 컸기에 아-탄성 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선생님의 이야기 내용은 '흙속에 저 바람속에' 에 나온 것들이었다. 선생님은 책을 이미 읽었던 거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알았다.

흙과 바람. 풍도風土라 해야겠는데, 바람풍風과 흙토土이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하다. '어떤 일의 바탕이 되는 제도나 조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제목대로 선생의 책에선 한국과 한국인의

풍도를 풀어 해쳤다. 선생의 예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건 물론이다. 정녕 한국과 한국인의 바람과 흙이었고, 책은 얼마나 팔렸고 읽혔다 했던가.

책에서 기억하는 게 있다. 선생이 봤던 한국의 식문화. 곧 '먹는' 한국 문화다. 씹 싸서 먹고, 찬밥에 물말아 훌훌 먹는 문화. 어디 씹과 밥뿐이라. 나이도 먹으며, 축구에선 골도 먹는다. 또한 마음도 먹는데, 육도 먹고, 애도 먹고, 챔피언도 먹는다. 말도 먹힌다 하는데, 선생의 말은 한국독자들에게 제대로 먹혔던 거다.

선생의 언변 또한 거침이 없었다. 그러나 선생은 달변이면서 송곳같은 날카로움이 같이 했다. 해학과 웃음과는 거리가 있다만, 깊고 예리하다 해야겠다. 날카롭게 보는 눈과 경쾌하게 해석하는 능력이야 누구도 쉽게 따를수없는 거다. 넓고 깊은 통찰력이 없다면

어림도 없었을 터. 역시 먹히는 화술이었다.

책이 첫 발간된 건 1960년대 중반이었다. 이미 반세기가 훌쩍 넘어선 거다. 그런데 현시대 한국의 풍도는 달라졌던가? 달라졌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던가. 한창 유행하는 융합이란게 과연 한민족 DNA에 잠재하고 있는 걸까? 궁금증만 더해 간다. 이것이 한국이다. 책의 부제副題라 했다. 이젠 이것이 한국이었다로 바뀌어야 할까.

이영려교수가 돌아갔다. 한시대의 지성이 세상을 떠났는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의 책을 다시 읽어야겠다.

바람을 저울로 달아내보내시며 (유기 28:25, 공동번역)

첨언: 이란(2016년10월 1일)을 통해 같은 제목으로 졸문을 지은적 있음 밝힌다.

통찰洞察. 이영려선생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다. 말이야 어렵지만 자주 쓰인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사전

적 풀이인데, 과연 선생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라 해야겠다. 중학교 2학년 적이다. 겨울방학도 마친 2월이었다. 교실은 불기없



THE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PRESENTS

SPRING CHAMBER CONCERT

WITH MUSICIANS OF THE BOSTON SYMPHONY ORCHESTRA



LISA JI EUN KIM
VIOLIN



SHEILA FIEKOWSKY
VIOLIN



DANIEL GETZ
VIOLA



OLIVER ALDORT
CELLO

WORKS BY SUNG-KI KIM, MARTINŮ, AND BEETHOVEN

SATURDAY, MARCH 26TH AT 7:30 PM

TUFTS UNIVERSITY GRANOFF MUSIC CENTER
20 TALBOT AVE. MEDFORD, MA

TICKETS: KCSBOSTON.ORG OR CALL (781) 223-4411

GENERAL **\$30**/ SENIOR **\$20**/ STUDENTS **FREE**

PROOF OF VACCINATION AND A 3-PLY OR KN-95 MASK REQUIRED. PLEASE VISIT KCSBOSTON.ORG FOR PARKING INFORMATION.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블랙아이스 낙상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꽃샘추위에 더 위험한 '블랙아이스 낙상'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척추관절센터 윤희조센터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눈이 비가되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우수(雨水)도 지났지만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한동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최대 10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날씨에는 낮에 녹았던 도로가 밤에 다시 얼어붙어 블랙아이스가 생기기 쉬워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보행자도 낙상사고를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블랙아이스는 도로위에 내렸던 눈이나 비가 낮 동안에는 도로 틈사이에 녹아 있다가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 매연이나 먼지 등 각종 이물질과 섞여 검은색으로 얇게 얼어붙은 것. 아스팔트 노면과 색깔이 비슷해 육안으로 도로 위 결빙상태를 미처 확인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블랙아이스는 일반 보행자에게도 치명적인 낙상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한겨울 빙판길이 아니다 보니 보행길 미끄럼에 부주의해 질 수 있고, 갑작스런 꽃샘추위에 두꺼운 옷이나 장갑 등 방한장구를 미처 착용하지 못한채로 넘어졌을 때 부상의 우려도 높다.

특히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는 몸이 움츠러들고 민첩성과 순발력도 떨어져 작은 부주의로도 미끄러지기 쉽다. 이때 손목 골절, 척추압박골절, 대퇴부 골절 등 직접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2020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추락·낙상사고는 응급실에 온 손상환자 중 33.3%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발생장소도 집이나 거주시설 등을 제외하면 도로나 교통지역이 가장 높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손을 짚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손목에 골절이 생기기 쉽다. 또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고연령층의 경우 낙상의 충격으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건강한 척추뼈라면 어느 정도의 충격에도 큰 문제는 없지만 노화나 골감소 등으로 척추뼈가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척추뼈가 내려앉아 찌그러지는 척추압박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낙상으로 인한 대퇴부 골절은 피해



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일단 골절을 입으면 대부분 수술을 받아야하고, 수술 후 회복되기까지 6~12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또 회복되더라도 기능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회복기간 중 계속 누워있게 되면서 욕창, 폐렴, 폐색전증 등 전신적인 합병증까지 올 수 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낙상사고 발생위험과 손상의 정도도 커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위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에 온 환자 중 추락·낙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대는 30.1%, 60대는 38.9%, 70대 이상은 무려 62.9%에 달한다.

또 고연령층의 경우 일단 골절이 생기면 회복되는 기간도 상당히 길고, 거동의 불편함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 또한 감소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도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낙상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출 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가 예상되는 도로길은 되도록 피하고 미끄러짐이 적은 신발을 착용한다. 걸을 때는 보폭을 최대한 줄이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장갑

을 착용한다. 또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감소로 하체 근력이 떨어지고 균형감각이 상실되기 때문에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만약 낙상사고를 당했다면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친 곳을 살피고, 손으로 만졌을 때 통증이 크거나 통증이 없더라도 심하게 넘어졌다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관절의 유연성이 급격히 떨어져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거나 민간요법 등으로 버티다가는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

“블랙아이스 낙상”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 | | | |
|--------------------------|---------------------|----------------|---------------|
| 눈 꺼풀 + 눈 밑 처짐 | 360 만원 | 콧대 + 코끝 | 350 만원 |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 700 만원 | 지방흡입(복부) | 500 만원 |
| 가슴 (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 600~1,000 만원 | | |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 010-3469-4040 / ID : huramkorea
✉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99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지역하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세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HOME RENOVATION
NAMU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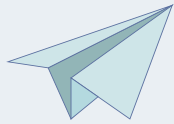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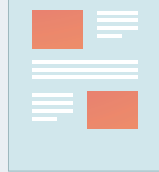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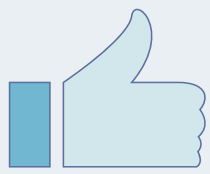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스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무료
견적
상담

🌐 www.namuma.com
 ✉ info@namuma.com
 ☎ 617-775-4771
 📍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 @namu_finewood

INSTAGRAM



보스톤코리아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